One pick 핫이슈

시트콤 '좋좋소' 시즌4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하는 사장 수당도 없이 새벽 야근하는 직원

"직장인 애환, 이보다 더 현실적일 수 없다"
조회수 5300만 얻었던 '좋좋소', 시즌4 공개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시트콤 '좋좋소' 시즌4가 돌아온다.

'좋좋소'는 중소기업 정승네트워크의 직원들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시즌1을 시작해 시즌3까지 화제를 모으다, 18일부터 왓챠에서 시즌4를 새롭게 내놓는다.

컵라면 하나도 아끼면서 사원들에게 노력만 요구하는 사장 정필돈(강성훈)부터 눈치는 없지만 발랄한 막내 이예영(진아진)까지 실제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 즐비하다. 사장의 자랑 무대가 된 신입 면접, 야근수당도 없이 새벽 3시까지 야근하는 직원들의 한탄 등이 현실감 넘치게 묘사됐다.

시청자들로부터 "이보다 더 현실적일 수 없다"는 반응을 이끌면서 5300만 누적 조회수를 얻었다. 시즌4는 이과장 등 정승네트워크의 직원 일부가 백인터내셔널을 차린 후 두 회사가 경쟁사로 맞붙는 과정을 그리면서 각종 변화도 선보인다.

시즌4 주역들은 공개 당일인 18일 오전11시 열리는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즌1부터 주인공 조충범 역을 맡고 있는 배우 남현우, 악덕사장 정필돈 역의 강성훈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진짜 중소기업 직원으로 착각할 만큼 실감나는 연기를 펼친 비법도 풀어놓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데뷔 3년만에 '올라운더'로 뜬 김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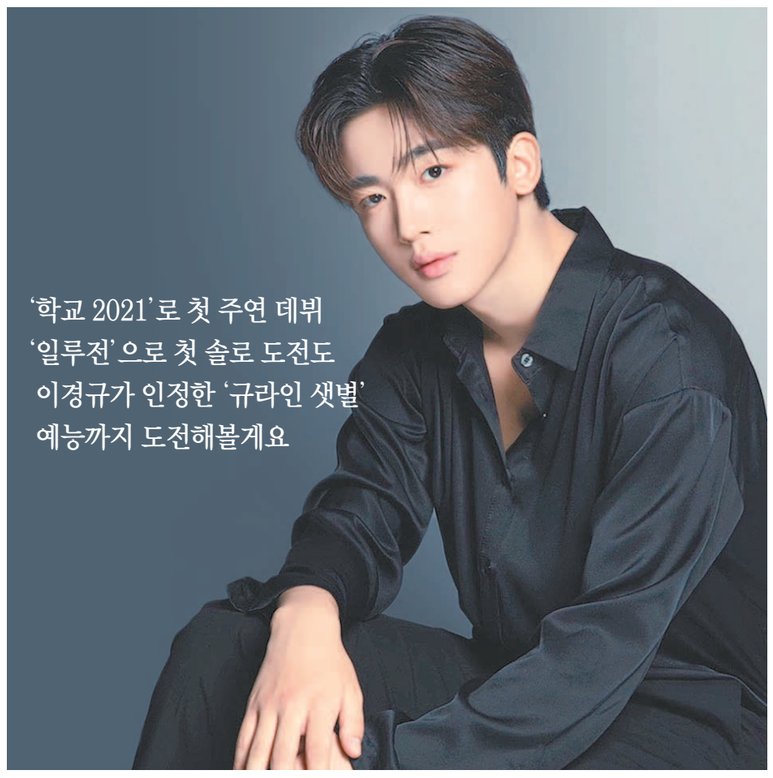
"가수·배우·예능…세마리 토끼 다 잡겠다"

"가수로, 배우로, 예능인으로!"

그룹 위아이 멤버 김요한(23)이 당차게 외친 올해 목표다. 주목받는 신인의 다부진 각오라고 해도, 새해가 얼마 되지 않아 이룬 성과를 보면 그의 활약상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처음 주연으로 나선 KBS 2TV 드라마 '학교 2021'이 13일 종영했고, 10일 발표한 미니음반 '일루전'(Illusion)을 통해 첫 솔로 도전도 성공적이었다.

2019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로 세상에 나온 지 3년 만에 '올라운더'(만능)로 올라선 셈이다. 김요한도 어느 때 보다 의욕적이다. "지난해 마무리는 배우로, 올해의 포문은 가수로 열었다"면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매력이 정말 많다"고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룹 위아이의 멤버 김요한은 주연 데뷔작인 KBS 2TV 드라마 '학교 2021'에 대해 "캐릭터를 연구하며 나를 더 들여다보게 됐고, 그로인해 성장하게 된 것 같다"고 돌이켰다. 사진제공 | 위엔터테인먼트

● "롤모델은 임시완 선배"

안방극장과 무대 위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다. 드라마로 김요한을 알게 된 시청자들이 "같은 사람 맞냐"고 깜짝 놀랄 정도다. 고등학생을 연기한 드라마에서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등장했지만 타이틀곡 '디저트'를 부를 때는 섹시한 매력을 뽐어낸다.

"안방극장과 무대를 동시에 소화해야 했어요. 주변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으냐고 묻는데 전혀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상태여서 매사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기와 가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병행할 예정이다. '롤 모델'도 정했다. 배우 임시완이다. 그룹 제국의아이들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해 스크린 스타가 된 임시완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드라마 주연을 해보니 중압감이 컸어요.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죠. 언젠가는 임시완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OCN '타인은 지옥이다' 속 선배의 연기가 강렬해서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요즘 방송하는 SBS '그 해 우리는'의 최우식 선배 같은 캐릭터도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 로맨스 장르, 꼭 다시 해볼래요."

● "예능 세계 '규라인' 뿌듯해요"

방송가와 무대를 누비는 지금, 불과 3년 전인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전에는 "태권도에 모든 걸 '올인'한" 태권도 꿈나무였다.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두 번이나 거머쥐고, 2018년 상명대 사회체육과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셨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접할 기회가 많았죠. 안타깝게도 발목에 부상을 당해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굉장히 몰입했기에 태권도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태권도의 길을 걷는 두 여동생을 힘껏 응원하고 있어요."

씩씩한 매력 덕분인지 방송가 선배들의 예쁨을 듬뿍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인 이경규다. KBS 2TV '개는 훌륭하다', 채널A '도시어부' 등 진행프로그램에 김요한을 초대해 "'규 라인'의 샛별"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응원에 힘입어 김요한은 이제 예능 세계도 넘보고 있다.

"어떤 예능프로그램이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선배의 샛별로 불리게 돼 영광이죠. 이경규 선배님! '규 라인'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드라마 '내과 박원장' 병원에 전화 걸었더니…

'박원장'역 이서진 직접 병원 소개
통화 후엔 예약 문자까지 발송돼
몰입 위한 신박한 아이디어 화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이 시청자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시청자들이 콘텐츠에 몰입할수록 팬덤이 두터워지고 화제몰이까지 할 수 있어서다. 각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콘텐츠에 등장하는 장소나 사건을 실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묘수'들을 내놓으며 시선 끌기에 나섰다.

14일 공개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과 박원장'이 대표적이다. 초보 개업의 박원장(이서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는 예고 영상을 모두 극중 배경인 박원장 내과의 지역 광고를 콘셉트로 만들었다. 해당 영상에 기재된 병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서진이 "드디어 저의 병원을 오픈했다"고 병원을 소개하는 음성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전화통화 후에는 '지금 바로 내원해달라'는 예약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된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과 박원장'

온라인에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시청자들의 후기가 넘쳐난다. 시청자들은 "실제 병원 예약 문의 안내 음성과 똑같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서진 아내 역 라미란의 버전도 최근 공개됐다.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제작진이 기획한 이벤트로, 이서진과 라미란도 "신박하다"며 음성메시지 녹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능 콘텐츠 '여고추리반2'도 비슷하다. 콘텐츠는 방송인 박지윤·장도연·재재, 가수 비비·최예나가 새로 전학 간 태평여고의 숨은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최근 방영 분량에서 태평여고의 전교생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카페 '급식창고'가 비밀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현실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연출자 정종연 PD의 의지에 따라 카페를 새로 개설했다. 이를 시청자들에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카페 회원이 되면 극중 등장인물들이 과거 나눈 채팅들을 엿볼 수 있다. 벌써 2만여 명의 시청자가 가입해 각종 추측을 나누고 있다.

유지혜 기자

휴대용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그것 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에,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名作 名品

착용해보고 놀라지 마세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하! 무릎이 편안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무르팍엔은 착용한 순간 생체원석의 생체에너지가 상승하여 1분에 2000회 이상 파동을 일으킵니다. 무릎 깊은 곳까지 생체에너지와 파동을 방사하여 순환을 촉진, 편안함을 드림으로써 무릎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겔라이트(Ge-lite)생기토
보통 게르마늄이라 불리는 겔라이트는 6500만년 이전인 백악기 한반도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고아물질입니다. 골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 사용한 희귀광물로 황토의 187배 이상의 효과를 지닌 황토엑기스라 불리웁니다.

칠보석
서로 다른 층리를 가진 광석들이 격렬한 지각변화와 화산활동을 통해 하나의 광물질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광석으로 아름다운 색상을 지니고 있으며 단일광물로는 기(氣)파동이 강력한 것이 특징이며 게르마늄이나 옥보다 250배 이상 방출한다는 파동에너지의 보석입니다. (돌침대의 원료)

그라파이트(Graphite)
천연 발열소재인 탄소를 2~3000℃의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높은 열전도성으로 각종 첨단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유해전자파, 수맥파 등을 차단하며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세계최초의 GNC신소재로 섬유에 함침시켜 전류를 통함으로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불편한 무릎을 위한 생체에너지 무릎밴드 상담 문의 무르팍엔 1670-5467